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정책분석 심포지엄 개최

수행과제명 ... 2011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3차 기초분석보고서

과제책임자 ... 이택면 연구위원

☎ Tel: 02-3156-7167, ✉ e-mail: onbike@kwidimail.re.kr

요약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정책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정책분석 수행하게 하고 결과를 정책분석 심포지엄 형태로 발표함.

1. 배경 및 문제점

여성가족패널은 2008년 1차 조사와 2009년 2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3차 웨이브 조사가 완료된 되었음. 이에 3차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에 앞서 여성노동, 출산과 가족분야에 대한 정통한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여성가족패널자료를 활용한 정책분석을 실시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심포지엄 주제는 “여성의 일과 가족, 그리고 출산”으로 총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출산관련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과 일자리관련 논문이 2편, 그리고 가족 관련 논문이 1편이 발표되고 토론되었음. 주제별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출산관련

- “20-30대 정규직 기혼여성의 출산현황 고찰” 연구는 출산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연령층을 20, 30대 여성으로 보고, 이들의 노동시장에서 이들 연령층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함
- “자녀출산과 여성취업 유형화 :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의 적용”의 경우 여성의 취업에 대해 이분법적 유형화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녀출산시기를 전후로 하여 여성의 취업궤적(trajectories)을 분석함
-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Korea and Strategies to Mitigate Its Decline: Commonalities with Japan” 연구는 한국의 출산결정과 출산율 감소완화 전략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함. 연구는 자녀출산의 quality-price 효과(Gary Decker 이론의 응용), 자녀양육 기회비용과 일가족 양립 및 출산에서 이들의 효과, 자녀출산의 태도와 행위 일치 효과와 출산의 결혼생활 만족의 역할의 세 가지 가정을 검증함
- “A Network Approach to the Economic Models of Fertility” 연구는 사회 네트워크 접근을 기존 출산 패러다임으로 통합한 경제적 모형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Estimating the Effect of Mother's Employment on her Intention to Have Another Child : A Panel Logit Model” 연구는 2째 이상 자녀를 갖으려는 의도와 어머니의 고용간의 영향을 분석함

■ 취업과 일자리관련

- “취업모의 직업선택 결정 요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의 지난 4년간의 종단자료를 통해 취업상태의 변화를 분석하여 실직과 재취업의 경향, 혼인의 시점과 연결하여 혼인에 의해 경력단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함
-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 변화에 대한 탐색적 접근 : 여성가족패널자료에서 나타난 일자리 이동을 중심으로”는 여성의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변화와 이동 유형 그리고 향후 변화에 대해 분석함

■ 가족관련

-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과 상호의존성” 연구는 시간배분 결정에서 부부간 상호작용이 작동하며, 그 힘이 일정한 원칙과 변화의 방향을 가질 것이라 가정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확대되면서 과거 여성이 수행하던 가사노동의 일정부분을 남성이 나누어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시간배분 결정요인을 통해 분석함

3. 정책제언

- 김상대 교수는 임신과 출산 능력이 높은 20~30대에 대한 정부와 고용주의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민현주 교수는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및 어린 자녀 육아기간 동안에 미취업상태를 유지하며, 특히 고학력 여성들 중에서도 출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향이 높아, 노동의 단절을 초래하는 주요요인이 된다고 주장함

- 오은진 박사는 여성의 취업의 걸림돌은 고학력 여성이 취업할 만한 직종이 부족하고 일-가정양립이 여성취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고학력 여성들이 진출 가능한 직업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둘째, 둘째 아이부터 양육지원이 시급히 지원되어야 하며, 셋째 일-가정양립에 대한 전방위적 캠페인으로 한국의 가족문화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황수경 박사는 가사노동을 포함한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분석 문제는 횡단적 분석에서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들이 모색될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명진 교수는 여성의 연령과 학력의 분절 경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지위문제는 일자리의 종류와 관련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둘째, 여성 취업 정책과 관련하여 자영업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취업정책은 연령과 학력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함

4. 기대효과

-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의 정책 활용도 제고
- 관계 부처에 대한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 홍보
- 여성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정책 및 사업 결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 강화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